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오 승 통
편집인 : 박 상 호

3. 성시화와 문화

4. 100인 인물탐구
(박상호 목사님과 함께)

5. 북한과 통일

6. 제네바 성시화

나 침 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4년 7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 68호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독교문화 선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문화의 바람을 타고~’

평화감리교회 / 한 군 목사



어 나갈 때 비로소 춘천 성시화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문화의 바람을 타고 온 땅에 퍼지게 하자! 춘천의 그리스도인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모든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춘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이 확실히 구현되게 해야 한다. 이 일은 가끔 열리는 몇몇 행사 중심의 방법으로는 대중적 변화나 시민부흥운동이 불가능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춘천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 운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영적 전투인 동시에 새로운 개척이기에 기도와 사랑을 함께 모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춘천기독교문화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독교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작품과 재능을 발굴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춘천의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그리할 때 춘천은 기독교 문화의 세계적 도시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힘차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춘천은 문화도시다. 지난 5월 8일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춘천기독교문화선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의 공연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메워졌다. 그 열기는 뜨거움과 감동 그 자체였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문화 선포식과 더불어 결식아동돕기 헌금이 5백만원 가까이 모아졌다. 이 모임에서 기독교문화선포를 통한 성시화를 이룰 것을 선언하며 출정식을 가졌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문화로 통하는 시대인 것이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방치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인 문화를 간과한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상황이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철학,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간에 함께 추구할 만한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적 표현을 통하여 함께 감동하고 그 질서 속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운동이다. 이러한 기독교문화운동이 이 춘천이란 작은 도시에서 차근차근 전개되

이달의 말씀

여호수아 [Joshua]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 김선일씨 피살
깊은 애도와 함께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과 국민을 존중하여 여기는 구조로 변화되도록
- 행정수도 이전 논란
현명한 판단과 강원도와 춘천이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 카페 크리스찬 오픈
오픈을 축하하며 춘천성시화와 문화의 꽃도 피울 수 있는 현상이 되도록
- 성시인터넷 미디어팀 구성
새로 구성되는 팀원들의 팀워크와 가장 아름다운 선교매체가 되도록
- 성시화를 위한 네트워크
성시화를 위한 다각적 사역 영역에 헌신한 일꾼들이 형성되도록
- 각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한 영적 부흥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도록

광 · 고 · 문 · 의

256, 257-1260
011-361-2004
011-7347-9004

춘천기독교문화센터 (Cafe Christian)



1. 크리스찬 라이브 콘서트
2. 음악감상회
3. 미술전시회
4. 문학소품 박람회
5. 열린 토론의 장

여기 그리스도인의 참된 휴식처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격조 높은 차와 식사가 있습니다. (양식 & 라이스)
각종 크리스찬 문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정앞 제일은행빌 Tel. 244-9117 / Fax. 244-9116

http://cafechristian.cyworld.com

“2004 춘천기독교문화제 선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마치고...

CBS 춘천방송 아나운서 / 고 길 화



방송에 입문하고 10년 동안, 해마다 때마다 열리는 각종 축제와 문화제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음 한 편을 무겁게 짓눌러오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게 무엇일까? 하고 꽤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중, 2000년을 카운트다운하던 1999년 여름부터 서서히 그 해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춘천 기독교문화제!!”

전 세계인이 새 천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뭉치 모를 막연한 희망을 잔뜩 부풀리고 있을 즈음, 대한민국 문화의 도시, 축제의 도시, 춘천에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춘천 기독교문화제”가 없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춘천 기독교문화제”는 세워져야 하며 세워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춘천 기독교문화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적 콘텐츠를 이용한 폭넓은 선교”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만나고 모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교회와 교단간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 깊은 교단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 때문에 명실상부한 기독교연합운동이 힘을 얻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게다가 춘천은 1967년부터 한국 최초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발원지 아니던가! 하지만 24만 정도를 헤아리는 크지 않은 도시의 이혼율이 전국 상위권에 올라있고 간과할 수 없는 자살율과 청소년 범죄, 늘 어가는 대형 유흥업소들은 ‘성시화 운동의 발원지’에 살고 있는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비단 위에 열거한 문제를 교회와 성도가 끌어안고 해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기독교문화제는 그야말로 단순하게 기독교적 문화를 나열하고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문화를 구성하는 각 장르별 콘텐츠 속에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생명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맞으며 각 나라와 기관과 단체가 거창한 목표와 원대한 포부를 밝혔듯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 역시 제2의 부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선교전략이 연구되고 있고 외국의 다양한 성경학습방법과 예배 유형들이 소개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지면을 들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하게 연구되는 선교전략 중에 ‘문화선교’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개봉한 “Passion of Christ”(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예로 들더라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못 사람들에게 전달한 역사적 사실과 감동은 철저한 성서적 연구와 기획, 과감한 투자,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영화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다.”라는 것이다. 백 번의 설교와 백만 마디의 말보다 2시간 짜리 영화 한편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 수 있다.

입시에 찌든 청소년들과 이렇다할 여가문화 없이 흥청대는 30대 이상의 직장인과 주부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술과 유흥으로 달래고 있는 현대인들, 결국 그것으로 모자라 자살로 이

어지는 사회적 문제! 그렇다고 사회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문화적 접근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전략 중에 문화적 선교전략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 할 수 없는 “춘천 기독교문화제”가 이 땅에 세워졌다.

2004년 5월 8일!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운동본부 중심으로 CBS 춘천방송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치러진 “2004 춘천기독교문화제 선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는 문화제를 위한 문화제가 아니라, 1회성 행사는 더더욱 아닌, 그야말로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기독교문화의 콘텐츠를 무기로 춘천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스러운 도시(聖市)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부디 내년에 열릴 “2005 춘천기독교문화제”에서는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더욱 다양한 기독교문화가 체계적인 준비와 기도로 더 막심해 있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할 때, 우리가기도하는 것 보다 더욱 빨리,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독교문화축제로
이름답게
꾸미는
성령의 도시

김 춘 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교회



담임목사 오승룡

춘천성결교회는

1.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3.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4.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5. 정직한 예물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14-140번지
PHONE : 033-257-6117/8 목회상담 : 257-6119



기/독/교/대/원/성/경/교/회

춘천나눔교회

since 1993 nanum community

200-180 강원도 춘천시 회계동 998번지
교회 ☎ 251-9191 fax) 252-0091 www.ocnanum.org

우리는 **준헌성사역**과 **아나눔** 나라의
연령을 위해 존재한다

성숙한 제자(disciple) / 행복한 가정(family ministry) /
건강한 교회(church of christ) / 거룩한 도시(holy city) /
하나님 세상(world mission)



담임목사 피종호

시역자(유대형/이순복/박상우/김진숙)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 **춘천지역의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선교단체 지도자등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동방향제시등 포괄적인 비전을 듣는 란입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춘천성시신문 편집인으로 선임되신 박상호 목사님(춘천제일장로교회)과의 인터뷰입니다. 본 인터뷰는 6월12일(토) 오후3:00 제일장로교회 당회장실에서 조영준 사무총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하 성시본부, 정재호 목사(성시본부 사무차장), 김미경 간사(성시본부) 참석하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제일장로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박: 부족한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교회는 1939년 5월 7일에 창립된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신대학교와 종신대학원을 나왔고 종신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한 후, 미국 Reformed seminary와 연계해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과정에서는 성경적 결혼관과 적응관계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박사과정에서는 현대교회에 있어서 장애인 치유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신학공부는 일찍 시작했지만 졸업은 늦었습니다. 중간에 휴학을 하고 택시운전, 자동차정비공장, 정비학 원운영을 하기도 했고, 건설회사의 장비관리, 동아그룹의 장비관리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2년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경험은 목회사역을 위한 예비준비 훈련이었고, 현재 목회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 박사과정에서 장애인 치유목회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요. 특별히 장애인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요?

박: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칠원지역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한 곳이라 많은 시간 금식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1년 중 두 달 정도는 금식을 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40일 금식기도 중 40일째, 숨이 끊긴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때 후유증으로 조리게에 이상이 생기고 시력을 잃어서 4미터 이상, 그 이하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지팡이를 잡고 다녔습니다. 이런 장애를 경험하며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을 이런 집단에서 수용하기 보다는 가정과 같은 생활 속에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리수용은 치유가 어렵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생활을 통한 적극적인 마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사역에 힘을 바치고 싶습니다.

정: 올해 춘천성시신문의 편집인으로서 선임되었습니다. 성시신문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박: 춘천이 성시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연합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집된 힘을 모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춘천성시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식민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독립신문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춘천성시신문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짐점 신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읽을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성시신문에 글이 올려지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시신문은 성시화운동의 진행과 방향 그리고 결과 등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공식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춘천에 오신지 8년째이신데 성시화 운동과 다른 사역, 예를 들면 복음운동, 연합운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성시화운동과는 달리 일반 사역은 일회성 개별 집단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디다만 성시화운동은 연합된 형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단이나 교파의 독특성은 있어야 하지만 춘천안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교단의 벽을 허물고, 목회자와 평신도간에 보이지 않는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춘천은 성시화의 출발점이면 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최악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 춘천성시신문을 위해 춘천지역에 있는 교회나 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춘천성시신문은 춘천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성시신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성시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입간지를 보듯이 내가 성시신문의 인쇄비, 활자 하나하나의 값을 후원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개별 교회 목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시화운동과 같은 연합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교단의 생활, 그리고 노회와 총회, 지역사회의 연합단체 등의 순서로 시간과 정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늘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합활동 특히 성시화운동은 목회자 개인만의 참여가 아닌 지역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체의 원리를 아시지요? 기독교연합회는 머리의 역할을,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를 실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성시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후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춘천의 모든 교회는 이미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됩니다. 초창기 성시화운동 진행 중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성시화운동본부가 모든 운동에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시화운동본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그렇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지역의 교회,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선교단체 등 모든 인적 자원들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은사별 전문 그룹이 형성되고, 각 삶의 영역에서 복음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야 모든 일을 독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연합회는 그야말로 연합체이기 때문에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동과 연구분야인 성시화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성시화운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박: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먼저 성시화로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시화운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 성시화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 춘천의 이혼율이 전국 2위이고, 유출입 소가 많은 곳으로는 1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전개된 지 30여년이 흘렀는데요. 춘천 지역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춘천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시화운동을 이끌어 오시고 섬기시는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영향력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몇몇 분들만 열심을 낸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임원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마지막으로 춘천지역 목회자들과 동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 예수님 주변에는 신실한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배반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선교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인공의 역할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배경이 되고 지원이 되며 조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는 제자되기 되어야 하겠습니다.

(글정리 편집부)

북한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강의를 듣고

나눔교회 / 권태봉 장로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어찌면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의 의식 속에 고정되어 있는 통일이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반공 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원과 조교 시절을 거쳐 현재 교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학 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운동권의 소위 '주체사상'이 대학가를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민주화의 혼란기를 살아오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학생들이 북한의 통일체전에 참석하고 휴전선을 통하여 입국하여 정부당국에 체포될 때, 또한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다 체포 구금될 때도 나의 생각은 항상 반공을 내세우는 정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변화 속에서 그 동안 불법 통일 활동으로 구속되거나 불법 학생운동으로 수배를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회의원으로 언론인으로 지도자적 위치에서 활동하고, 남북공동성명, 햇빛정책 등등... 기독교 단체와 정부가 앞다퉁 북한을 지원 할 때, 무언가 나의 생각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정신적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전의 시기가 종식되고 사회주의국가

들이 붕괴되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반공의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 속에는 공산주의는 폭력혁명, 잔인한 민족인사들의 숙청, 기독교의 탄압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허문영 박사님의 통일특강(주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 쓰신다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담임 목사님의 권고로 통일선교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탈북자들의 간증과 통일선교대학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적 노력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전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왜 북한선교가 필요한가?를 알게 된 지금, 이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가져왔던 고정관념이 180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마치 선교사라도 된 기분으로 북한 사회 개방의 필

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 민족의 처한 역사적 도전과 과제 등을 전하게 되었고, 오랜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면 북한에 대한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북한 실상과 통일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유북한의 방송에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 강연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평화적 통일이여야 한다는 말은 많은 공감을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적이 아니고, 그들의 처절한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했어야 할 우리의 동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반평생을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북한동포들은 우리의 원수와 적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였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통일선교대학을 통하여 북한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통일과 선교를 위하여 활약하시는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통일한국이 선교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된 것에 너무나 만족하고 통일선교대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권태봉 장로님은 현재 한림정보산업대학 교수이시며, 나눔성경교회 장로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2003년 10월 '일어나는 춘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춘천에 있는 은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맞보았다. 이 일의 일환으로 GMP(Global Missions Pioneers) 춘천지부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교의 열정을 되살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의 발걸음 위해 2004년 4월 6일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총 10주 과정으로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고, 선교 헌신자 및 선교사 후보생을 발굴하여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훈련은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과정이며 더욱 발전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 과정 중간에 한국지역내의 선교현장을 답사하였고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후에는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선교현장을 탐방함으로써 더 실제적인 선교의 현장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선교훈련의 강사로는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시고 안식년으로 본국에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뜨거운 선교의 산 증거를 토대로 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의 열면 강의를 듣는 훈련생들 모두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듯 보

GMP선교훈련을 마치고...

갈리리 교회 / 이 상 용 전도사



였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스러웠다.

2시간의 강의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조별모임으로 이어진다. 이 시간에는 훈련된 선교의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는 시간이 되었다. 각 조마다 뜨거운 기도의 힘과 이 때하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를 토의하면서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까지 점검하게 되었고 조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긴장된 얼굴과 선교에 대한 열의도 없어 보이던 모습이었는데 강의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모두가 헌신된 선교사의 마음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신한다. 주님

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명령인 유대와 시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에는 과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선교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선교의 불길이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으로 흘러갈 것을 말이다. 그리고 훈련생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동역자임을 확신한다. 겨자씨 한 알이 무성한 덩굴을 이루듯이 이번 훈련을 통해 훈련생 모든 분들의 삶속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의 헌신자들이 구름떼 같이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

애틀어 호·성·할·금·여·영·시

ntours

대표: 김지현 집사
(011-9057-3946)
TEL: 244-7400
순천 동부교회

- 합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알선 (수하·출입 여행)
- 배낭여행·아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 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베드로선교센터

- 세계선교연구원
- 선교세계관학교
- 어린이 선교원

조은제 목사 (HP:011-309-5373)
기정희 권사 (HP:011-9901-1149)
센터간사 이수란 권사
(사무실: 253-3399, HP:019-9903-1148)
주소: 효자 2동 312-1 (200-092)

J.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성시화운동

늘사랑교회 / 정 재 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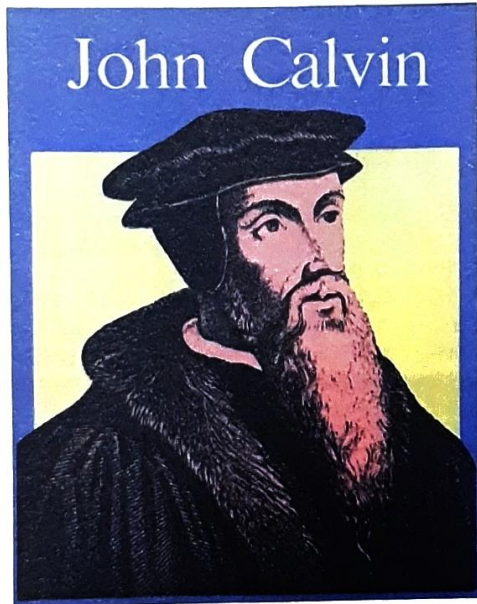


1972년,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지 어언 30여년이 흘러갔다.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 기관으로 창립된 지 8년 만에 국내 22개 지역에 성시화운동지부가 설립되었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지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004년 5월29일부터 6월2일, 포항에서 있었던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는 성시화운동이 이미 춘천이라는 지역복음화 운동을 떠나 세계적인 기독교운동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중요한 대회였다. 이제 우리는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서 성시화운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성시화운동의 영원한 출발점이자 영원한 모델인 요한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물론 요한 칼빈과 그의 제네바가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시화운동을 실천하고, 전개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성서적인 영적동인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여, 급변하는 우리의 시대에 그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다시 한 번 도시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요한 칼빈과 그의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 가야만 했던 많은 시대중의 한 시대에 불과할 뿐이다. 그는 시대의 한 정점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은 그의 전·후 시대에 달랐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칼빈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고민했는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응전했는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도시를 향한 그의 강렬한 외침에서 미완성의 과업인 성시화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칼빈과 개혁운동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두에서 참된 지혜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od)과 우리들 자신의 지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지식과 죄인을 구



원하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칼빈의 확신과 주장은 칼빈의 개혁운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통찰력을 제공하여 준다.

스위스 제네바시를 개혁하였던 칼빈의 개혁운동에 있어서 칼빈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언급한 개인적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와 묵상이라는 행위보다 훨씬 넓은 범주를 의미한다. 사실, 칼빈주의자의 경건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매일의 관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업과 정치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에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생각이었다.

여기에서 칼빈의 개혁운동과 관련해서 미리 말해둘 것이 있다. 칼빈이나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정치가나 사회개혁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시정부가 부르거나 혹은 허락하여 목사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처음 출발부터 정부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숭고한 신앙적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말씀의 원리가 지배해야 한

다는 것이었다.

칼빈의 교회개혁

칼빈이 제네바에서 행한 개혁운동의 첫 출발점은 교회 개혁이었다. 이것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첫번째로 행했던 시도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 개혁의 계획을 문서형태로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는 후에 "제네바 교회의 법령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바 칼빈이 추구했던 개혁운동의 핵심은 제네바의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교회 법령에 의한 훈련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을 바르게 하며 징계 대상자를 훈계하여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교회가 죄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적 충고를 하고 공지의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 의회에 부처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법령에는 교회예배의 실제적인 세부지침도 결정되어, 예배와 요리 문답 공부 그리고 교구의 경계선 등을 정하였다. 특히 평신도인 장로는 권징의 실행을 맡았다. 장로들과 목사들은 권징을 책임지는 종교법원을 구성하였고, 평신도가 목사보다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원장은 선출된 행정관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종교법원은 교회 법원이었지, 시민 법정은 아니었다. 목사들은 세속재판권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치리 법원은 정부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했다. 요한 칼빈은 이 법령에 기초하여 성도들의 도덕적 훈련을 감행하였다. 주로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규모가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훈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법원에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과오를 범한 자들의 교정을 위해 형제로서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우리는 칼빈이 권징의 실시와 실행을 교회 문제해결의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생각했다는 실수를 범하면 안된다. 권징은 해결책의 일부에 불과했다. 칼빈의 말처럼 권징은 고후2:7에 따라 엄격함이 항상 온유함의 의해 조절되어야만 했고, 또한 권징이 교회의 순결의 보호와 회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칼빈은 생각했다. 또한 엄격히 말하면 권징은 그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권징은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실제적이며 개인적으로 효과 있게 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 칼빈의 제네바 종교법원이 폭군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간주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MEV/K

성경의 말씀



교무총장 목사



부회장 목사



총무 목사



서기 목사

이사장: 김창수 목사
부이사장: 김주환 목사, 이원호 목사, 임신영 목사
이사: 권오서 목사, 엄대섭 목사, 유진형 목사, 백낙영 목사, 박인관 목사, 전은홍 장로, 민병업 장로, 심인섭 장로, 허 전 장로, 김용진 장로, 최동우 장로, 김태권 장로
지회장: 박상호 목사
총무: 박태원 목사

합동총무: 윤병국 군종침도 장용섭 목사
서기: 석정기 목사
회계: 이순훈 장로
감사: 김광국 목사 최남식 목사
사무국장: 마철규 장로
후원교회: 신성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광명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춘천목회자 축구 선교단

1. 목적과 비전

- 1) 축구를 통한 주 5일제 근무 시대에 요청되는 선교의 활성화
- 2) 축구를 통한 지역 사회 복음화와 교회 부흥
- 3) 축구를 통한 지역 목회자의 교제와 건강 증진

3. 임의 및 외연

- 1) 임원
 - 단장: 고영일 목사 (푸른 성결교회)
 - 감독: 김병천 목사 (남산 감리교회)
 - 코치: 박문수 목사 (행복한 순복음 교회)
- 2) 회원
 - 장로교: 지용찬 목사와 13명

- 감리교: 김병천 목사와 8명
- 성결교: 고영일 목사와 6명 (예성) 이주호 목사와 5명 (기성)
- 순복음: 박문수 목사와 7명
- 침례교: 조영춘 목사와 2명
- 3) 회원 자격
 - 춘천 지역에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 부목회자(전도사 포함)

2. 모임 안내

- 1)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6:30
- 2) 장소: 공지천 잔디 구장
- 3) 회비: 월 1만원

칼럼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편집장 박상호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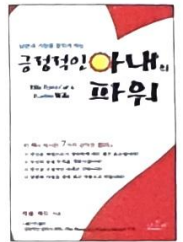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연합이란, 개개인을 어떤 동일한 목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하나로 꿰어 놓아야 비로소 그 형태를 이루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춘천이 거룩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성사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감히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실현이 늦어지고 그 운동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

여기에 성시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연합회가 추구하고 있는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계획을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성시본부는 그 역할을 확대해야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이를 일깨우고 협력을 촉구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 고리의 역할은 성시신문이 담당할 몫이다. 성시신문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성시신문

은 신문을 함께 만들어가는 춘천 교회들의 소리통이며 얼굴이기도하다. 성시신문의 내용에 의하여 춘천기독교계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할 일과 그 방향도 깨닫게 된다. 아울러 교회와 성도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들도 깨닫게 된다.

눈을 가리고 귀도 막고 입도 막아버리고 생활해 보자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있으니 살았다고 할뿐 그것이 어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성시신문은 우리의 눈이다. 그리고 우리의 귀도 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도 말할 수 있다. 더더욱 우리의 입이기도 하다. 이 귀한 춘천기독교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무시하지 말자. 오히려 잘 발달시켜 우리의 감각을 높이자. 그리고 내용의 편성을 가급적이면 다 쫓점으로 하여 나이 지식 직분 직업 등 다양한 눈높이 맞추기를 하자. 춘천에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흡수된 구슬이 되지 말자. 연합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꿰어 놓은 보배가 되어 하나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성시신문을 통하여 그 방향이 제시되고 성시신문을 통하여 감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성시신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피고 다듬어 춘천기독교연합회의 건강한 이목구비(耳目口鼻)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책으로 보는 세상



“긍정적인 아내의 파워”

(원서명: The Power Of A Positive Wife - Published by Howard Publishing Co.)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곧 그 기대치에 대한 환상은 깨지고, 결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연속이며 어쩌면 '두 죄인 간의 만남'으로 인해 더욱 험거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게 된다.

저자는 본사에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아닌,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결혼관계에서 아내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원동력은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아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아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신하게 계획하신 결혼생활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원리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낙담에 대해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는다.

여름방학기간
4주 무료강좌에 가족중환자
특강기간: 7월26일~8월28일
교육과정: 자폐, 그루퍼, 틱장애, 학습장애
씨앗 컴퓨터학원
무명3동(미원) 동아로출입구 3층 ☎252-0179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가꾸는 가정

사랑의가정연구소 대표 / 송길원

웰빙이 사회문화 현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한 살짜리 아이까지 '어-엄마'란 말 대신 '에예-에빙'이란 말을 먼저 배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다. 웰빙이란 물질과 성장만을 지상과제로 삼아왔던 이들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가치에 눈뜨면서 생겨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나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은 미국의 신화자이며 목회 상담가인 하워드 클라인 벨이다. 그는 '전인 건강'이란 저서에서 '웰빙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과 균형 잡힌 고른 성장'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사회 일각에 불고 있는 웰빙 열풍은 고급스런 생활용품, 웰빙 식단, 웰빙 스포츠 등 한마디로 말해 웰빙이 아닌 웰 해빙(Well-having)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웰빙 육아라는 것도 바로 이런 상흔에 놓인 허구일 뿐이다. 진정한 육아는 유기농 채소와 분유로 아이들의 식단을 짜고 친 환경 건축 자재라는 황토 바닥재에 특수 장판지를 바른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웰빙 엄마들이 갖는 최고 관심사는 극성스러운 정도의 육아에 대한 집착이다. 이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산양 젖으로 만든 '초특급' 프리미엄 분유가 등장했는가 하면 뇌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두뇌 상품들이 연일 히트를 치고 있다. 알파파가 나온다는 '두뇌 감'이 판매되는가 하면, 35만원짜리 명품 기저귀까지 등장했다. 처음에는 사치스럽게만 보이던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부부 중에는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한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육아를 아예 포기하거나 한 아이만 집중적으로 잘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육이 더해져서 조기 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기에 과도하게 문자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수록 학습 스트레스로 초등학교 이후 학습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묘목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묘목이 금방 고사당하고 마는 것과 같다.

'모차르트와 두뇌개발'의 음반보다 오히려 엄마의 흥얼거리는 자장가가 좋고, 35만원짜리 명품 기저귀보다 천 기저귀가 아이들 건강에 더 좋다. 비싼 청정기와 가습기보다 아빠 엄마의 사랑스런 숨결이 아이에게 영혼의 호흡이 된다. 가장 좋은 환경은 '부모 환경'이란 말이 있듯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놀라운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게 된다. 이제라도 네오 웰빙족이 되어 내 자녀들을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기르고 가꾸자.

since 1978

책임집니다! 저렴합니다!

교회현수막 전문

실사·나염·인쇄물·판촉물·족자·썬팅 기타상당

천일기획
(동성교회 앞 우정우물 뒤)
Tel. 033) 256-5722
Fax. 033) 256-5722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 시 공 : 박승기, 전종국

신앙을 가진 동역자를 찾습니다. 작은투자로 뜻있는 분 상담바랍니다.

오성가구

온수용 학생용 사무용 가구 일괄
석사APT입구 SK텔레콤 건물

Tel. 262-4740
011-362-4746

기독교연합회 행사들

♥ 부활절새벽연합 예배



· 4월 11일(일) 오전 5시 시청광장 앞

♥ 허천 장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



· 4월 26일(일) 오전 7시
· 새중호합 새종을
· 약 150여명 이상의 순천의 교세 지도자들이
당선을 축하하다.

♥ '순천기독교 문화 선포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 5월 9일(토) 저녁 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 주 관 : 순천기독교연합회,
순천성시화운동본부
· 전 행 : 고길희 아나운서(CBS방송)
· 출연자 : 송정미, 소리엘, 이지훈,
calling band

♥ '제9회 음악과 강연의 밤'

· 5월 13일(목) 저녁 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 김익길 교수 초청 강연과 송정미 사모의
찬양 집회

♥ 구원파 성경 세미나

· 지난 5월 25일부터 한 주간
· 강원대 백령 문화관에서
· 구원파(백수)의 성경 세미나가 있었으나,
순천 기독교인들의 불참과 더불어 순천 성시
화운동본부의 항의와 강원대 교수회의 항
의로 중도하차

♥ 강원 기독교 연합회 체육 대회



· 순천 기독교 연합회 장배 축구 대회
· 5월 26일 각 교단별 삼리교 장로교 침례교 연합체육대회가 열렸다.

♥ 2004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큰잔치



· 6월 5일(토) 공지현 아와 특설 무대
· 오후 3시~6시 30분
· 주 회 : 허스데인 목사와 경배와 찬양팀(두린노)
· 주 관 : 순천성시화운동본부
· 찬조출연 : 예수 사담 운동

♥ 제1회 포항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

· 5월 29일(토) ~ 6월 2일(수)
· 참석자 : 조은재 목사, 신종철 장로
조영훈 목사, 정재호 목사
최상도 목사 외 10여명 참여
· 이 행사에서 김 준관 목사(CCC)는 성시 운동
의 그 출발점과 꿈이 순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순천 성시화 운동 비망록'을 제자 배
포하였다



♥ 제11회 순천 지역 어린이 연합 찬양 축제

· 6월 19일(토) 오후 5시 30분
· 순천 중앙 삼리 교회
· 주 회 : 웨드비전 순천동림사회복지관,
순천기독교연합회
참가 교회 : 소양정감교회 순천제일장로교회
순천제일삼리교회 남춘천삼리교회
석사삼리교회 순천중앙삼리교회

♥ 제1회 강원도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



· 6월 21일(일) 오전 7시 순천 김연숙 해당홀
· 약 200여명의 강원도의 교세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조찬예배를 드렸다.

♥ 카페 크리스찬 개관



· 6월 24일(목) 오전 11시 각 기관 및 교세
지도자들이 모여 개관예배를 드림

♥ 2004년 경합성교를 위한 교경부용회

· 기 간 : 6월 29일(일) ~ 7월 23일(수)
· 순복음 순천교회
· 강 사 : 임기호 목사(성령교회)

♥ 제8회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 협회전

· 기 간 : 6월 26일(토) ~ 7월 2일(금)
· 순천미술관
· 주 회 : 강원도 기독교미술인협회
· 후 원 : 순천기독교연합회, 순천기독교방송국

♥ 고 김성일씨 용천에 분향소 설치

· 2000 순천 중앙 장로교회에서 교육진도사
로 사역

JOINUS

여성의류 전문
조이너스

대표 : 마열규 장로

명동점 : 조양동 49-3
(한미은행 앞)

☎ 033) 251-3611

KARRA IMPLANT

여성의류 전문
카라 임프란트

대표 : 이경의 권사

중앙로점 : 중앙로 2가 78
(한국투자신탁 옆)

☎ 033) 254-9175

- 새로워졌습니다 -

지금까지 춘천지역에서 성시화를 위한 불씨로서 기도와 정보를 담으며 성장하였던 성시신문이 더 큰 세도약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간 대판 1장 4면으로 발간하였으나 시대적 감각과 우선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광과 집속의 편의성을 위하여 타블로이드판 2장 8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성시신문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적극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



▶ 편집위원 소개

앞줄 왼쪽부터

김준배 화백(화목교회),
조영준 목사(에광교회),
박상호 목사(편집장, 춘천제인장로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뒷줄 왼쪽부터

최상도 목사(사암중앙교회),
정재호 목사(늘사랑교회),
김미경 간사(늘사랑교회),
김규현 전도사(등대교회),
이영규 목사(춘천안디옥교회),
오창호 전도사(기독교연합회 사무국장)

▶ 사진 김수영 전도사(비전교회)

♣ 알려드려요

◆ 예수사랑운동

'제8회 청소년을 위한 예수 캠프'
· 주제: '산상수훈'
· 일시: 8월4일(수) ~ 7일(토)
· 장소: 화천 반석수양관
· 문의: 244-5400 / 019-538-3235

◆ 한국대학생교회(C.C.C.)

'2004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 주제: CIMPLE CHRIST IS MY PERSONAL LORD
& EVERYTHING
· 일시: 6월28(일) ~ 7월2(금)
· 장소: 횡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 문의: 254-5776

◆ 예수전도단

1) Youth Camp
· 주제: '그리스도의 향기'
· 일시: 7월2(일)(월) ~ 28일(수)
· 장소: 전주 우석대학교
2) 대학생청년 Mission Conference
· 주제: Jumping for Mission
· 일시: 7월5(일)(월) ~ 9(일)(금)
· 장소: 대전 목원대학교
3) Grace Conference(가정전도학교)
· 주제: 거룩함/신분/성령의 능력/사명
· 기간: 8월11(수) ~ 14(토)
· 장소: 대전 목원대학교
· 문의: 252-1128 / 011-9490-6612

◆ JDM

1) '전국 대학 여름 집회'
· 주제: 'Yes Devotion Yes Miracle'

· 일시: 6월29(화) ~ 7월3(일)(토)
· 장소: 춘천 WDTI
2) '대학생 제자훈련 (전국순례)'
· 일시: 7월5(일)(월) ~ 10(일)(토)
3) '중앙아시아 선교대회'
· 일시: 7월5(일)(월) ~ 17(일)(토)
· 문의: 252-3192 / 011-9058-3192

◆ 어린이 전도협회

1) [3일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약칭 3DC)]
· 1차: 7월5(일)(월) ~ 9(일)(금)
· 장소: 충남 천안
· 대상: 교사, 중고등학생, 선교사 지망생, 신학생, 교회학교 담당자 등
· 등록마감: 6월 30(일)(수) 오후 6:00
· 2차: 8월 2(일)(월) ~ 6(일)(금)
· 장소: 속초
2) 어린이 성경캠프
· 일시: 8월 10(일)(화) ~ 13(일)(금)
· 장소: 속초 진부빌 기도원
·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축하하라
· 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3) TCE 전도자 대학 #1 25기 모집
· 이론 강의: 8월 23(일)~28(일) 오전 9:30~1:00
· 전도실습: 9월~11월 중 12주간/매주 1회
· 장소: 춘천지회 사무실(배드민턴외과 4층)
· 문의: 253-1443 / 018-292-8839

◆ CC교회 인도 비아르 선교 여행

· 일시: 8월16(일)(월)~25(일)(수)
· 대상: 청년부
· 문의: 251-9191 / 011-399-2939

<성시화 후원자 명단>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성시화를 위한 구독연금에 동참합니다)

남춘천김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열린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등부교회
사암중앙교회	늘사랑교회
천일현수막	엔투어(호성합광)
김길홍	김현철
민병업	박동환
성기은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판호	이학규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기독교교회협의회 춘복음춘천교회

표어: 동력으로 전도하여 배가부유 이복아지(막16:16)
담임목사 김주환 목사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교회사무실 253-2741 / 담회장실 253-2742

기독교교회협의회 남춘천교회

· 가치: 영혼 구원
· 사명: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
· 비전: 기도·전도·헌신에 불타는
안디옥 공동체
· 전략: 성령 충만한 소그룹
공동체

담임목사 유진형

교회사무실: 244-8881-2
목사실: 244-8885

